

---

제주연구원-중국연구기관

- 학술교류 업무 협의 -

---

2017. 11

제주연구원

## I. 출장개요

### □ 목 적

- 제주연구원은 중국연구센터 설립 이후 중국 내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과 2012년 MOU 체결 이후 매년 정기학술교류 개최를 통해 한중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본 교류에서는 사드사태 이후 한중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향후 한중 및 제주-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제주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대외경제무역대학교는 2015년 4월 제주연구원과 학술교류 협약체결 이후 교류가 없는 실정임
  - 기존 제주연구원의 대중국 교류는 대부분 중국연구기관이었으나 제주연구원의 국내 대학과의 교류 또한 많아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대외경제무역대학교와 제주, 제주연구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자 함
- 중국여유원 및 중국여유연구원 관광통계센터 방문을 통해 향후 제주연구원과의 학술교류 및 구축자료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중국여유연구원과는 2015년 MOU 체결이후 2016년 학술교류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사드 영향으로 개최되지 않았음
  - 또한 중국여유연구원과의 학술교류 진행 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3개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향후 단독 세미나 개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
- 이에 본 출장에서는 제주연구원과 기체결된 기관방문을 통해 공동 세미나 개최 및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향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 등을 협의를 조율하는데 의의가 있음

□ 개요

○ 기 간 : 2017년 11월 19일 ~ 11월 22일(3박 4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국여유연구원

○ 여행자 인적사항 : 강기춘(제주연구원장), 엄상근(제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정지형(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 주요일정

| 월 일<br>(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br>기관            | 업무수행내용<br>(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 접촉예정인물<br>(직책포함) |
|------------------|-----|-----|---------------------|--------------------------------|------------------|
| 11월 19일<br>(일요일) | 제주  | 북경  | (이동)                | • 제주 출발 → 북경 도착                |                  |
| 11월 20일<br>(월요일) |     | 북경  | 중국사회과학원<br>아태글로벌연구원 | • 학술교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 李向陽 원장         |
| 11월 21일<br>(화요일) |     | 북경  | 대외경제무역대학교           | • 교류 협력방안 논의                   | - 韓維春 원장         |
|                  |     |     | 중국여유연구원             | • 관광통계센터 방문 및 교류협력방안<br>논의     | - 夏少顏 부주임        |
| 11월 22일<br>(수요일) | 북경  | 제주  | (이동)                | • 북경출발 → 제주 도착                 |                  |

## II. 출장내용

1)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방문 및 학술교류 업무논의

□ 개요

○ 일 시 : 2017. 11. 20.(월) 14:00~16:00

○ 장 소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연구원

○ 참여자 : 李向陽 원장, 朴光姬 科研처장



□ 주요내용

- 아태 전략연구원은 1988년 아시아태평양연구소로 설립되어 2011년 현재 명칭으로 재조직 되었음
  - 현 인원은 68명, 상직 인원 60명임. 그 중 연구(편집) 인원 52명, 관리 인원 8명이며 50세 이상이 19%, 40-50세가 42%, 40세 이하 39%를 차지하고 있음
- 아태 전략연구원은 중국 당 중앙의 대외정책방침에 따라 대외관계와 국제관계 등 영역의 이론과 현안을 핵심 연구과제로 종합적인 국제전략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중국사회과학원APEC동아시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남아시아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태평양 연구센터,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보센터,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동남아연구센터 등 6개의 연구센터와 중국아시아태평양학회,중국남아시아학회 등 2개의 학회, 국가글로벌전략 싱크탱크, 랜디 싱크탱크(중국사회과학원 '일대일로'국제 싱크탱크) 등 2개의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연구영역은 중국 주변 전략연구, 대국관계 및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일대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 주변 전략연구는 대표적인 연구영역으로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 중국과 동남아 양자관계 문제, 남아시아와 중국 인도관계 문제, 중국동해와 남해 문제, 아시아지역 경제 협력, 중국 주변환경 평가와 전략적 선택 등이 있음
- 대북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는 아태 글로벌전략연구원의 새 연구 영역으로 중미, 중일, 중러, 중인(中印) 등 대국관계, 신흥경제체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트럼프정부의 아태 정책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다자무역체제와 지역경제협력 등이 주요 연구과제라 할 수 있음
- 일대일로 연구는 중국의 신시기 대외개방과 글로벌거버넌스 참여로 인해 새로이 설정된 연구 영역으로 '일대일로'의 의미와 거버넌스 구조, '일대일로' 리스크 평가, '일대일로'와 중국 대외개방의 관계, '일대일로'와 경제외교의 관계, '일대일로'와 주변전략의 관계, '일대일로'와 세계거버넌스의 관계 등이 주요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외 중국사회과학원의 '등정전략(登峰戰略)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협력이 우선 연구분야로 지정되어 지역경제협력의 이론과 실천, 중국 지역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를 연구하고 있으며, 아태 정치와 중국 주변전략 두 분야가 중점 연구분야로, 국제전략이 특수 연구분야로 지정되었음
- 2017년의 경우 사드배치로 인해 한중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대외교류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편이었음
- 아태연구원의 연구영역 중 핵심분야가 주변국가전략이라면 주변지역과의 협력을 요하는 일대일로 위주의 연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한국 및 제주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향후 이에대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중국에서 환경 보호 등 환경에 관련된 문제, 지역 불균

형 해소,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이 3가지 주요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될 것임

- 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급 프로젝트이지만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주와의 교류가 필요함
- 또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문제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 증가 및 유치, 제주 상품의 중국 수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 중국 내 연구기관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곳임
  -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제주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곳임
- 아태 연구원의 경우 중국 사회과학원 내에서도 중국 주변국가의 국제관계가 핵심영역인 연구기관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곳이라 할 수 있음
  - 2017년의 경우 비록 사드문제로 인해 학술교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동주제 발굴을 통해 지속적,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됨
  - 당초 정기학술교류로 예정되었으나 중국측 사정으로 인해 향후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 2)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방문 및 학술교류, 방문학자 협력 논의

### 개요

- 일 시 : 2017. 11. 21.(화) 10:00~12:00
- 장 소 : 북경대외경제무역대학교
- 참여자 : 韓維春 원장, 韓康一 교수



□ 주요내용

- 대외경제무역대학교는 1951년 개교하였으며, 중국 교육부와 상무부가 공동관할하는 중점대학교임
  - 최근 교육부의 “중국 대학교 취업 50강”의 평가 중 2위, 취업률 순위 전국 2위, 취업의 급여순위는 전국 4위(문과계열 초봉순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중국학생과 유학생의 비율이 대학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중국 최고의 국제화 대학임
- 현재 대외경제무역대학교는 제주대학교와 중국 국가한판 '상무공자학원'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 또한 제주대학생 방학 4주 중국연수 프로그램(중국어+중국취창업 특강), 상호 교환학생 학점인정 어학연수, 대학간 교수와 학생 상호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특히 제주도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경제무역대학교의 경우 학내 싱크탱크 설립을 통해 지역연구와 FTA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 지역연구의 경우 시진핑 정부 방침에 따라 '일대일로'와 관련된 경제구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FTA의 경우 본 대학의 가장 중점학과가 국제무역이니 만큼 주력 연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현재 한중 FTA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향후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 및 정부에 대한 제의를 준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과 한중 FTA, '일대일로' 지역연구 등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학술교류가 필요
- 또한 대외경제무역대학교는 산동 지역에 추가로 연구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을 설립중에 있음
  - 산동지역의 경우 특히, 위해, 연태 지역은 한국기업들이 상주하고 있어 양지역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임
- 대외경제무역대학교와 제주연구원은 2015년 4월 MOU 체결이후 후속 조치가 많이 부족하였기에 향후 실질적 교류를 위한 조치가 필요
  - 우선적으로 대학 내의 한중 FTA 센터와, 일대일로 연구센터와의 학술교류 및 인력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주지역과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 현재 제주대학교 및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연수가 진행되고 있어, 제주연구원의 참여의사가 있는 연구원들의 참여가 필요함. 이후 제주연구원의 증축 후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의 경우 EMBA 등 공인인증된 경제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제주연구원과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 제주연구원 연구원들의 안식년 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 이수와 중국 내 네트워크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내 연구기관이 아닌 대학과 제주연구원의 지속가능한 협력방

안 모색에 애로사항은 있으나 제주대학교, 제주지역 공무원 연수 등 인적교류가 있으며, 한중 FTA, '일대일로' 지역연구 등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교류 추진이 필요함

### 3) 중국여유연구원 관광통계센터 방문 및 자료공유 협력 논의

#### □ 개요

- 일 시 : 2017. 11. 21.(화) 14:00~16:00
- 장 소 : 중국여유연구원
- 참여자 : 唐曉云 주임



#### □ 주요내용

- 중국여유원은 2015년 4월 제주연구원과 2016년 학술교류를 진행하였음
  - 2017년에도 진행되었어야 하나 사드문제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음
- 본 출장에서는 여유연구원 통계센터 방문을 통해 자료 공유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제주지역 내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향후 저가관광 탈피,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자에 대한 자료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중국여유연구원 통계센터 자료는 크게 white(공개), gray(내부자료), black(비공개)로 나누어 지며, 공개자료는 여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본 자료는 중국 국가 통계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료임
- 하지만 중국여유연구원에서도 중국의 각 지역별 아웃바운드 여행객에 대한 세부자료는 없는 실정임
  - 각 지역별, 예를들어 북경시, 상해시, 광둥성, 사천성 등 주요 지역을 제외한 지역별 자료는 각 지역의 여유협회에서 관할하고 있음
  - 매년 출간되는 중국 아웃바운드 발전연도 보고에서는 주요 지역의 현황만 분석하고 있음
- 제주 지역 내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출국지역, 소비지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얻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국 여유연구원 또한 아웃바운드 관광객에 대해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원단, 춘절, 청명절, 단오절, 노동절, 국경절 등 기간에만 실시하고 있음
  - 이 기간 조사를 통해 중국 여행경제 예측을 하고 있음
  - 이외 시장측면에서는 공안국의 출국자 수, 산업측면에서 호텔, 관광 명소 방문자수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행자 예측을 하는 실정임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히 세부 홍보전략 마련과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별 타깃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유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가 필요

- 학술교류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주제별로 지역별 아웃바운드 현황 및 홍보전략 등 세분화된 주제발굴이 필요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중국 내 주요 지역별 아웃바운드 현황, 세부홍보 마련에 대한 자료구축과 이를 위해 중국여유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이 필요

### Ⅲ. 시사점

- 최근 한중 관계가 소원해져 있지만, 10월 31일 이후 양국의 관계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
- 본 출장에서 방문한 3개 기관 중 2개의 연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를 진행해야 하는 곳임
  - 아태연구원의 경우 중국 주변국가전략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제주연구원과 정확한 접점이 없을 수 있지만 중국 내 대외정책을 제언하는 중국 사회과학원 내 핵심기관으로 향후 제주의 대중국 진출 전략 마련 시 충분히 협력 가능한 연구기관으로 판단됨
  - 중국여유연구원 또한 중국 여유국 산하기관으로 중국의 관광 관련 정책 및 자료구축을 하고 있어 향후 제주지역의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하여 충분히 협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주제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외경제무역대학교는 제주대학교, 제주지역 공무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제주연구원과의 방문학자 교류 등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확대와 한중 FTA 연구, 지역연구 측면에서 실질적인 교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